

# KIMA+ PLUS

Magazine of Korea International Marine Week  
October. 2013 | Vol. 01

## 해양레저,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라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 BIFF  
2013 국제수퍼요트컨퍼런스

+ Culture  
신개념 해양버라이어티 '바다야 놀자' 제작현장

+ Industry  
해양레저산업의 혁신바람  
BRAVO 마이 요트라이프

KIMA+ Plus

October. 2013 | Vol. 01

KIMA 2013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WEEK

주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후원  대한요트협회  KSPOT  한국관광공사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BC  
특별후원  BPAV  부산항만공사  (주)광든블루

www.kimaweek.org

# KIMA+ plus

Magazine of Korea International Marine Week 2013  
Vol. 01 | October. 2013

발행처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조직위원회  
 발행인 김수병  
 편집인 여한웅  
 기획·편집 안효영  
 디자인·제작 하늘기획 051.611.3970  
 발행일 2013. 09. 30  
 add.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8번길 69  
 tel. 051.760.1130  
 web. www.kimaweek.org

KIMA+ plus는 글로벌 해양레저문화축제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의 홍보용 매거진입니다.



## 02 / KIMA WEEK 2013

해양레저, 새로운 바닷길을 열러  
 KIMA WEEK 2013 행사개요  
 Messages\_ 축하 / 환영사

## 12 / KIMA Special

개막식 & 2013 국제수퍼요트컨퍼런스  
 Marine Sports Week  
 제3회 코리아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  
 제2회 광안리 달빛수영대회  
 KIMA WEEK 2013 어린이요트대회  
 해양레저 무료체험 페스티벌에 5,000명을 초대합니다.



## 22 / KIMA+ BIFF

영화의 바다에서 요트를 만나다

## 26 / KIMA+ Culture

신개념 해양버라이어티 '바다야 놀자' 제작현장  
 바다랑 노는 3MC, 바다에 대한 3가지 이야기

## 30 / KIMA+ Industry

해양레저산업의 혁신바람, 파워보트계 이노베이터  
 BRAVO 마이 요트라이프

## 37 / KIMA+ City

이제 부산을 KIMA CITY라 부른다



KIMA+ plus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재생필름가 50% 이상 함유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인쇄, 제작하였습니다.

## 41 / KIMA+ Reports

부산의 해양레저산업, 잠재력과 전망  
 부산 그리고 해양레저산업 미래전략  
 동남권 해양레저 콘텐츠 & 스타일  
 Marine DB



# *New Blue Road* with Marine Leisure

해양레저,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라

16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탐험가였던 ‘윌터 롤리 Walter Raleigh’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다.  
그의 예측은 적중했다.

21세기, 해양은 누가 지배하는가?  
우리는 ‘바다를 누리는 자’라 답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 향해 보다 창조적인 뜻을 올린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해양레저축제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가  
해양강국 코리아를 향한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갈 것이다.

# KIMA 2013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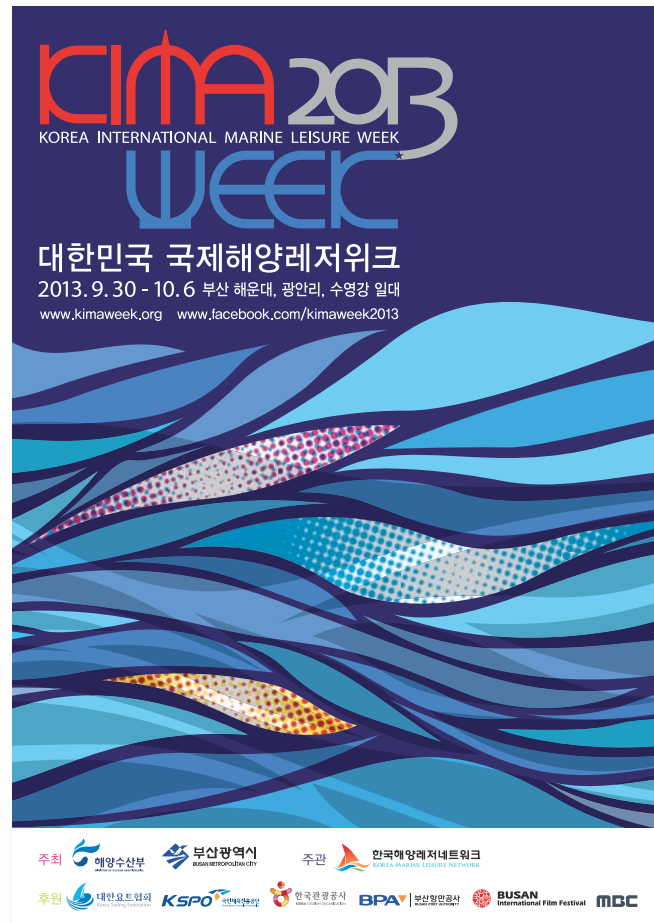
##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2013.9.30.~10.6

KIMA WEEK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해양 레저의 저변을 확산하고 관련 산업분야를 육성하여 해양강국 코리아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기획한 국제규모의 해양레저축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관하는 KIMA WEEK는 2013년을 원년으로 해마다 국제규모의 컨퍼런스와 컨벤션을 유치하고, 각종 해양레저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레저를 모티브로 세계가 한데 어울리는 새로운 해양문화를 창출하게 된다. 해양을 중심으로 산업, 문화가 조화로운 융합을 이루어내며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해양레저축제'를 지향하는 KIMA WEEK는 해양인프라를 통한 국내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진정한 창조경제의 세계를 개척함으로써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향상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것이다.

### Concept System





Program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식  
(KIMA WEEK 2013 Grand Opening)

10월 2일(수) AM 11:00 | BEXCO

2013 국제수퍼요트컨퍼런스  
(International Super Yacht Conference)

10월 2일(수) PM 1:30 | BEXCO

Marine Sports week

- 제3회 코리아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  
10. 1(화) ~ 6(일) | 수영강 APEC나루공원
- KIMA WEEK 2013 어린이요트대회  
10. 5(토) ~ 6(일) | 해운대해수욕장 앞 일원
- 제2회 광안리달빛수영대회  
10. 5(토) |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 해양레저 무료체험 페스티벌  
9. 30(월) ~ 10. 6(일) |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Culture week

- 부산국제영화제 연계 쇼케이스
- 부산국제영화제 요·보트 무료체험 Marine BIFF zone 운영
- MBC 해양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바다야 놀자!'

City week

- KIMA Grand Sale 키마 그랜드세일



##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다를 통해서 세계로 나아갔고, 해양을 개척하면서 국력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바다는 새로운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으로 활짝 열려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가 해양산업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강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부산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이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와 희망의 마당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KIMA WEEK 2013 개막식 대통령 축하영상의 내용을 녹취요약한 내용으로  
공식 홈페이지 [www.kimaweek.org](http://www.kimaweek.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KIMA WEEK 2013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윤진숙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해양레저를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뜻 깊은 축제가 될 이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다가 있었기에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다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레저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서·남해 모든 바다가 저마다 독특한 아름다움과 특색 있는 자연을 갖추고 있기에 말 그대로 우리 바다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여건에 창의적인 우리 국민의 노력과 열정이 더해진다면 해양관광레저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신성장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KIMA WEEK는 대단히 의미있는 1주일간의 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컨퍼런스와 각종 해양스포츠대회, TV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무료 체험활동을 통해 해양레저가 얼마나 유익하고 즐거운지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서 그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하여 펼쳐짐으로써 영화와 해양레저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부산으로 오게 하고 흥이 넘치는 부산의 가을을 만끽하게 할 것입니다.

처음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에 많은 분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축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부산을 동북아 해양레저 메카로 육성하는  
희망찬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허남식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바다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만큼 분명한 명제도 없습니다. 현재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여러 해양산업 가운데서도, 21세기 해양 경제의 가장 뚜렷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는 바로 해양레저산업 분야입니다.

세계 해양레저 장비산업의 시장규모는 현재 5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업 시장규모인 600억 달러에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곧 조선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에 접어들 때 해양레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선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국내외 시장여건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해양레저 개발구상과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부산은 3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비롯해서 천혜의 여건을 갖춘 해양레저의 최적지입니다. 국제 교통망을 비롯한 관광편의 시설도 두루 갖추고 있고 부산지역 마리나를 찾는 외국 관광객도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이런 추세에 맞춰서,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해양레저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 해양레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등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양선진국 도시들과 비교할 때 시설과 제도 등 여러 면에서 여전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KIMA WEEK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조직위원장 김수병 **김수병**

바다는 오랜 역사 속에서 생명의 보고, 생활의 터전, 생산의 원동력으로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바다는 인류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끊임없이 역동할 것이라 믿기에 이 시대는 새로운 안목으로 바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양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 전 세계는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운을 좌우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범국가적 과제로 해양을 통한 창조경제를 궁리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해양레저'를 통해 그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KIMA WEEK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해양레저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분야를 육성하여 해양강국 코리아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기획한 국제규모의 해양레저축제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는 2013년을 원년으로 해마다 해양레저를 주제로 한 국제규모의 컨퍼런스와 컨벤션을 유치하고, 각종 해양레저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해양레저를 모티브로 세계가 한데 어울려 소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양문화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해양을 중심으로 레저스포츠, 산업, 문화가 조화로운 융합을 이루어내며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해양레저축제'를 지향하는 KIMA WEEK 2013은 해양 기반의 국내산업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함으로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바다와 더불어 더 원대한 꿈을 이루는 마련한 축제, KIMA WEEK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축제의 성대한 개막을 축하 드립니다.**

아름다운 도시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축제의 성공으로 이끌어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급성장 할 것 입니다. 우리 부산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즐기시고 또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국회의원



**전 세계인이 함께 어울려 즐거움을 나누는 글로벌 해양레저축제,  
'대한민국 국제해양 레저워크' 개막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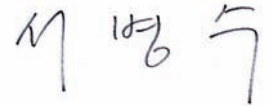
부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글로벌 해양레저도시 부산에서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주목받는 해양레저의 저변이 확대되고, '해양강국 코리아의 비전' 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머지않아 맞이할 제2의 장보고 시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파이팅을 외칩니다.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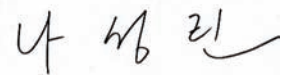
서병수 국회의원



**이번 축제에 국제요트컨퍼런스, 보트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산이 국제 해양레저 관광 중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또 해양레포츠가 미래성장 사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레저해양워크 파이팅. 동북아 해양중심도시 부산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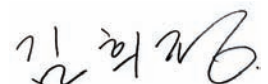
나성린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말만 들어도 너무 설레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육지에서 산악에서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이미 찾았습니다. 이제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의 해양레저는 바로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적합하고 또 대한민국의 해양도시 부산이 딱 입니다. 앞으로 부산이 더욱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국회의원



---

##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의 개막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수려한 경관을 가진 연안도시가 많은데, 이는 갈수록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각종 해양레저 활동을 위한 훌륭한 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고부가가치를 지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해양레저 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각적으로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해양수산부는 올초 '해양레저과'를 신설해 본격적인 해양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저 역시 우리나라의 해양레저 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태 경 국회의원



---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레저 축제로서 첫항에 나서는 2013 국제해양레저워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좋은 가을날에 해양 레저스포츠의 향연과 함께 지구촌의 만남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우리 부산에서 국제해양레저워크가 앞으로 순풍에 돛 단 듯이 순항에 나가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석 조 부산광역시의회위원장



---

##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2013 대한민국 국제 해양레저워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퍼요트 전시회와 국제 드래곤보트대회의 어린이 요트대회 그리고 달빛 수영대회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해양레포츠의 메카 부산의 매력에 흠뻑 젖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임 헤 경 부산광역시교육감



---

## 대한민국 국제 해양레저워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해양 레저산업은 최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에는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성황리에 문을 연 국제해양레저워크는 해양레저 분야에서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해양레저 도시 부산을 알리는데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모든 참가자분들께 해양레저를 체험하고 즐길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조 성 제 부산광역시상의회장



# Grand Opening + Super Yacht Conference

KIMA  
WEEK  
2013

KIMA WEEK 2013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국제수퍼요트컨퍼런스'다.

개막식과 함께 준비한 국제수퍼요트컨퍼런스는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분야, 특히 요트 관련 관계자 800여 명이 모여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레저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며 소통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해양레저산업이 어떻게 창조경제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수 있을지, 세계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강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 길을 모색하게 될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적인 마리나 & 요트 권위자인 배리 젠킨스 Barry Neville Jenkins 호주수퍼요트협회(SYA) 회장이 기조연사로 참석한다.

배리 젠킨스 회장은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해양산업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이번 수퍼요트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이 해양레저 산업의 선두가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며 참석의 변을 전했다.

컨퍼런스 세션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했다. 세션1에서는 '창조경제 기반의 글로벌 해양레저 비즈니스 성공사례'에 대한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수퍼요트 시장 : 아·태 전망과 한국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풍성한 토론이 이어지게 된다.

**일 정** 10월 2일(수)

① KIMA WEEK 2013 개막식 11:00~12:00

② 2013 국제수퍼요트 컨퍼런스 13:30~18:00

**장 소**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초청대상** 국내외 요트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800여명

**공식언어**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신청 및 안내**

10:00~11:00	등록
11:00~12:00	<b>Grand Opening &amp; Keynote Speech</b> 개막식 기조연설
12:00~13:30	오찬
13:30~15:00	<b>SESSION 1   주제발표</b> 창조경제 기반의 글로벌 해양레저 비즈니스 성공사례
15:00~15:30	커피브레이크 휴식 및 네트워킹
15:30~17:30	<b>SESSION 2   종합토론</b> 수퍼요트 시장 : 아·태 전망과 한국의 발전전략

\* 개막식은 부산MBC를 통해 생방송으로 방송되며, 컨퍼런스 세션실황은 TV녹화 방송됩니다.



## Keynote Speaker



**Barry Neville Jenkins**  
 호주수퍼요트협회(SYA) 회장  
 호주 국제해양수출협회(AIMEX) 이사  
 전 호주 해양산업 연합(BIAA) 회장  
 전 호주 마린퀸즐랜드(Marine Queensland) 회장

## Conference Session

### Session 01

주제발표 | 창조경제 기반의 글로벌 해양레저 비즈니스 성공사례

#### Moderator /



**이신형**  
 서울대학교  
 조성해양공학과 교수

#### Speaker /



**강양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Brett Bakewell White**  
 뉴질랜드 Bakewell-White Yacht Design  
 대표, 수석디자이너



**Christian Due Hammershoej**  
 덴마크 X-Yacht 이사



**Barry Neville Jenkins**  
 호주수퍼요트협회(SYA) 회장

### Session 02

종합토론 | 수퍼요트 시장 : 아·태 전망과 한국의 발전전략

#### Moderator /



**김상현**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Panel /



**강석주**  
 (주)씨케이아이피엠  
 대표



**도순기**  
 현대요트 대표



**유흥주**  
 인하대학교 경기  
 시그라트 부센터장



**심상목**  
 중소조선연구원  
 센터장



**조우정**  
 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교수

# Marine Sports Week

Dragon boat, Swimming in the Moonlight, Optimist Yacht

KIMA  
WEEK  
2013

## 01 | Dragon boat 제3회 코리아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

2013. 10. 1(화) ~ 6(일) | 해운대구 수영강 APEC 나루공원

코리아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는 2010년부터 개최한 국제규모의 대회다.

해마다 해운대 수영강변 하구의 APEC나루공원에서 펼쳐지는 세계 각국의 용선 퍼레이드는 해양레저스포츠의 도시 부산에서 만나는 특별한 풍경이다. 첫해에 8개국 11개팀의 선수 약 300여명이 참가했고 지난해에는 14개국 5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해마다 대회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KIMA WEEK의 행사로 참여하면서 더욱 풍성한 강변의 질주를 기대하게 한다.

참가선수 | 세계 10여 개국 드래곤보트클럽 회원팀 300여 명, 부산시민 2,000여 명

주요경기 | ① 드래곤보트 12인승 : 200m, 500m / 오픈, 여, 혼성

② 드래곤보트 22인승 : 200m, 500m / 오픈, 여, 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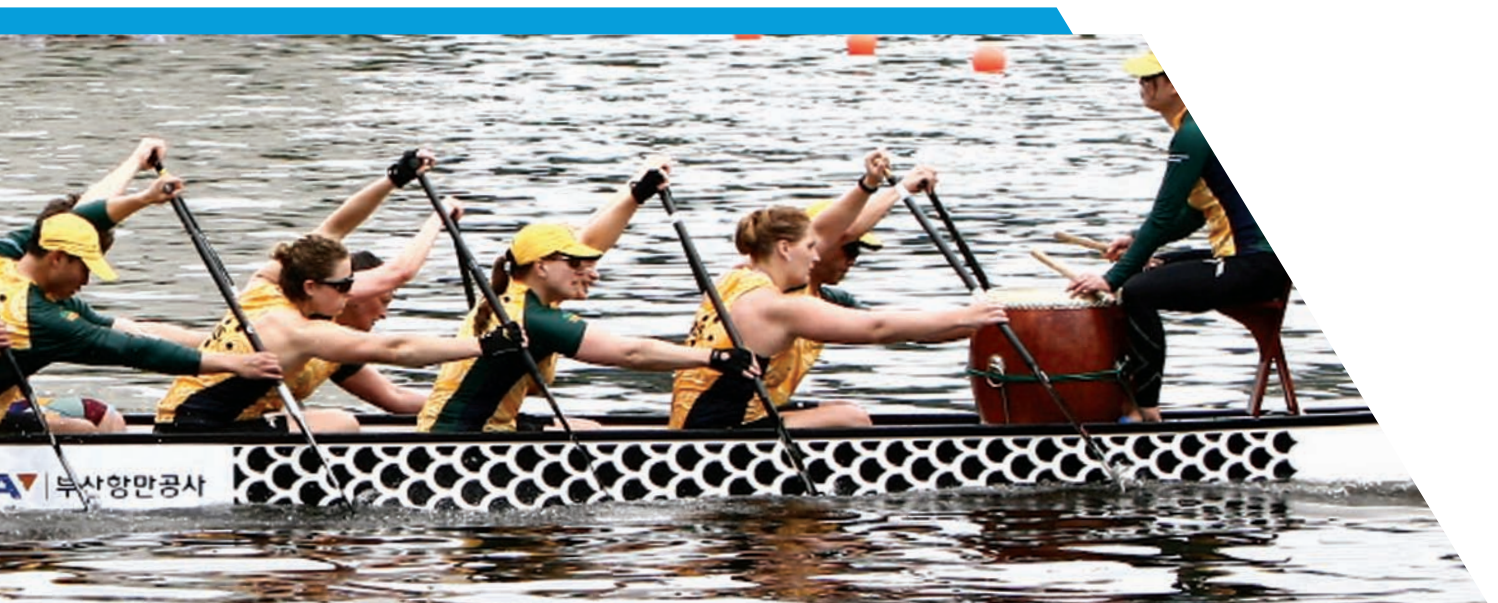
### 드래곤보트

드래곤보트는 한 배에 보통 20명 안팎의 패들러(paddler)가 고수의 북소리에 맞추어 한 동작으로 노를 저어 수면 위를 질주하는 수상레저 스포츠다.

용주(龍舟) 또는 용선(龍船)이라고도하는 드래곤보트는 한 배에 12~30명이 탈 수 있으며, 노잡이, 키잡이, 북잡이, 징잡이로 선수를 구성한다. 배의 방향은 키잡이가 조절하고 페이스 조절은 노잡이가 하며, 북잡이는 북을 두드려 흥을 돋운다. 경기방식은 남, 여, 남녀혼성 3가지가 있으며 스피드를 겨루는 경기이다.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드래곤보트축제를 개최하는데, 유럽과 미국, 아시아에서 해마다 국제 규모의 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

부산광역시드래곤보트협회

T. 051-743-5855 F. 051-742-3309 E-mail. bdba@hanmail.net





## 02 | Swimming in the Moonlight

### 제2회 광안리 달빛수영대회

2013년 10월 5일 pm 6~10시 |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약 2km)

2012년 6월, 광안리 해변에서 이색수영대회가 열렸다. '달빛수영대회' 라는 이름 그대로 해질녘 달빛 아래 펼쳐지는 바다수영대회다. 전국 바다수영동호회에서 500여 명이 참가했던 제1회 대회에서는 광안리 해변에서부터 왕복 1.6km구간을 동호회별로 대형을 구성해서 수영솜씨를 겨루었다. 참가선수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지만, 다이아몬드 브릿지의 조명을 받으며 500명의 선수들이 유명하는 모습은 지켜보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을 선사했다. 올해는 약 9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광안대교 아래 1km의 해상레인도 설치했다. 어쩌면 부산이라서 가능한 특별한 수영대회가 아닐까 싶다.

참가자격 | 바다수영 동호회 소속으로 바다장거리 핀수영대회 2km, 3km 원영자(각 동호회 회장의 판단에 의함)

#### 1m1w ?

2012년부터 시작된 광안리 달빛 수영대회 참가선수들이 수영하는 거리 1m 당 1원씩 적립하여 바다살리기 비용으로 기부하기로 한 캠페인 이벤트다. KIMA WEEK 2013과 함께 하는 올해 대회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울경바다수영연합회

안성관 (010-4222-8075) 최경준 (010-4775-3434) 최정환 (010-4543-3033)



# 03 | Optimist Yacht

## KIMA WEEK 2013 어린이요트대회

2013. 10. 5(토) ~ 10. 6(일) | 해운대해수욕장 앞 일원

바람 좋은 가을날, 대한민국 대표 바다인 해운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치러낸 그 바다에서 세일링 꿈나무들의 레이싱이 펼쳐진다. 전국 어린이 요트선수 100여 명이 참가하는 KIMA WEEK 2013 어린이요트대회는 옵티미스트, 레이저 피코 등 두 개 종목으로 나뉘어 경기를 진행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강국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때, 다음 세대에게 해양의 에너지와 즐거움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산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선수 | 전국 어린이 요트선수 100여 명

주요경기 | 국제 옵티미스트급(아시안게임 정식종목), 레이저 피코

### 옵티미스트급이란?

세일링요트에는 크루저(cruiser)와 딩기(dinghy)가 있는데, 크루저는 연안에서 멀리 나갈 수 있는 요트로 선실이 있고, 입출항과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소형 보조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딩기는 소형이며 오직 바람의 힘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연안, 강, 호수에서 사용된다.

옵티미스트급이란, 딩기요트 중 15세미만이 탑승할 수 있는 1인승을 말하는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기도 하다.

레이저피코는 요트에 처음 입문하는 초보 세일러를 위해 제작한 딩기요트로 강습용 딩기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동호인급 대회인 레이저피코대회가 2009년 이후로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요트협회

T. 051-747-1768 F. 051-746-1793 E-Mail. bsaf@bsaf.or.kr



# 맛을 보아야 맛을 알지!

해양레저 무료체험 페스티벌에 5,000명을 초대합니다.

KIMA WEEK 2013은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해양레저축제' 를 지향한다.  
하지만, 해양도시인 부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해양레저가 그리 친밀하진 못하다.  
'럭셔리' 라는 오해 때문이지 싶다.  
KIMA WEEK의 원년인 2103년 가을, 우리는 이 오해와 편견의 커튼부터 걷어내기로 했다.



## 해양레저 무료체험 페스티벌

키마위크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다.  
행사가 진행되는 일주일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양레포츠 5개 종목에 대해  
5,000여 명에게 무료체험의 기회가 주어진다.  
홈페이지(www.kimaweek.org)를 통해  
예약 접수한 신청자면 누구나 체험이 가능하며,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참가자들에게도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양레저 무료체험페스티벌은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가  
보유한 해양레포츠 장비를 사용하게 되며,  
센터를 통해 간단한 교육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종 목	장비정보	소요시간	운영시간
크루즈요트	12인승 2대	60분	10시 ~ 13시 / 3항차 14시 ~ 18시 / 4항차
제트보트	12인승 1대	30분	10시 ~ 13시 / 6항차 14시 ~ 18시 / 8항차
모터보트	8인승 2대	30분	10시 ~ 13시 / 6항차 14시 ~ 18시 / 8항차
딩기	2인승 5대	60분	10시 ~ 13시 / 3항차 14시 ~ 18시 / 4항차
카약	1인승 4대 2인승 4대 3인승 1대	60분	10시 ~ 13시 / 3항차 14시 ~ 18시 / 4항차



## Cruise Yacht

### 크루즈요트

크루즈요트는 연안에서 멀리 나갈 수 있는 요트로 선실이 있고, 입출항과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소형 보조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크루즈요트는 거친 파도와 강풍에서도 적응해 가면서 항해해야 하기 때문에 끈질긴 정신력과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 또한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자연현상에 적절하게,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해양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크루즈요트야말로 바다를 통해서 자연에 적응 할 수 있는 정신력과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 스포츠다.



## Jet Boat 제트보트

상어모양의 위용부터 짜릿한 제트보트는 지난 여름 광안리 해양레포츠 인기종목이었다. 다량의 물을 가속화시키는 스크루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제트보트는 무엇보다 뛰어난 추진력이 강점이다. 또한, 손쉬운 조종성으로 장애물도 쉽게 피할 수 있다. 쾌속 질주의 최강자, 제트보트는 해양레저의 다이나믹한 즐거움 온 몸으로 만끽할 수 있다.

## Motor Boat 모터보트

파도를 가르며 신나게 달리는 모터보트는 여러 명이 함께 안전하고 편하게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있는 종목이다. 2월~12월까지 탈 수 있으며 광안리 해변에서부터 광안대교까지 전력질주한다. 모터보트를 운전해주시는 안전요원의 스티어링 넘치는 스피드로 달리며 여기저기서 즐거운 탄성이 들린다. 광안리에는 8~10인승 모터보트를 4대 보유하고 있다.



## Dinghy Yacht 딩기요트

딩기는 소형 무동력 요트다. 바람에 돛을 맡기며, 오직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연안, 강, 호수에서 사용된다. 파고가 높지 않은 광안리는 딩기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딩기요트는 초보자들이 타기에도 안전하며, 보통 3월~11월까지가 세일링의 적기다. 어느 정도 교육이 끝나면, 대여하여 즐길 수 있다.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에는 딩기요트 Topaz 8척, Laser Pico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부산 최초로 국내 제작한 Winda 15척이 새로 보강되었다.



## Kayak 카약

광안리 해변만큼 카약을 즐기기에 좋은 곳도 없을 것이다. 호수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파도를 즐길 수 있지만, 대체로 파도가 잔잔한 편이라 안전하다. 보통 5월에서 11월 사이에 즐기기에 좋은 카약은 다른 레포츠에 비해 쉽게 배울 수 있어 1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경험할 수 있는 레포츠다. 탑승 전, 전문 강사로부터 패들링, 턴, 전복 시 복귀방법 등의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조종하게 된다. 카약을 타고 광안대교와 방파제를 돌아오다 보면, 바다에서 들여다보는 광안리의 도심풍경에 눈길을 빼앗긴다. 카약의 고난위도까지 훈련된 매니아라면, 광안리에서 오류도, 동백섬을 돌아오는 코스(약 17km)로 4시간의 카이킹을 즐길 수도 있다. 최근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에서는 더 많은 이들의 카약 체험을 위해 100여 대의 카약을 추가로 보유했다.

### Friendly Marine Spot

## 20여 종의 해양레포츠를 일년 내내 즐긴다!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는 가깝다. 우선, 물리적인 접근성이 좋다. 버스든, 지하철이든 대중교통 하차 지점으로부터 도보로 10분 거리다.



여름 휴가철에는 해수욕을 즐기다가 혹은 해변길을 거닐다가도 마음만 먹으면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 속의 해양레저를 실현 중이다.

또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도 해결했다. 적게는 1~2만 원대에 장비대여가 가능할 만큼 가격이 착하다. 해양레포츠는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마니아층에서만 즐기는 레포츠란 생각에 낯을 가렸다면, 이제 해양레포츠와 눈을 맞춰도 되지 않을까?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는 다양한 일상 가운데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연수 및 학교 특별활동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물론, 비즈니스 세일링, 소형 컨벤션, 개인 이벤트 등 해양레포츠를 접목할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 종목

크루즈요트, 딩기요트, 모터보트, 제트보트, 제트카약, 카약, 서핑, 바나나보트, 래프팅보트, 스킨스쿠버, 워터버거, 수상스키, 웨이크보트 등

### 무료대여 및 부대시설

슈트, 라이프재킷, 파라솔, 옷 보관시설, 샤워시설, 탈의시설

### 센터정보

전화 | 051-755-0707, 622-0201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광안해변로 54번길 222

이용시간 | AM 09:00~PM 18:00

(매주 월요일 휴무 : 7~8월은 제외)

홈페이지 | [www.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kr](http://www.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kr)  
[cafe.daum.net/korcenter](http://cafe.daum.net/korcenter)





## 마린 비프존 MARINE BIFF ZONE

MARINE BIFF ZONE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준 국내의 영화 관계자 및 게스트들에게 오픈되는 요트 체험 행사로 다양한 미팅, VIP 의전, 게스트들의 부산 관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진마리나의 78피트급 요트 Ferretti 780와 (주)파워마린이 제공하는 9대의 요트 등 총 12대의 요트를 MARINE BIFF ZONE에서 만날 수 있다.

**기간** | 2013. 10. 3(목) ~ 10. 12(토)

**장소** | 수영만 요트경기장 중앙 4번 선석

**참여요트** | 한진마리나, (주)파워마린 소속 요트 총 12대



### 벅스코 Yacht B(요트비)

[www.yachtb.co.kr](http://www.yachtb.co.kr) T. 051-740-7959

부산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 전문회사인 BEXCO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요트와 컨벤션'의 콜라보레이션이다. 두 대의 배를 붙인 모양의 카타마란(Catamaran)요트로 요트컨벤션, 요트투어를 위해 개발된 Yacht B는 부산소재 요트제작사인 (주)광동FRP산업에서 만든 순수 국내기술의 요트다. 이름은 부산(Busan), 벅스코(BEXCO), 부산하면 떠오르는 푸른바다(Blue sea)의 첫 글자인 B를 따온 것으로 공모를 통해 정했다.

### (주)파워마린

[www.powermarine.co.kr](http://www.powermarine.co.kr) | T. 051-731-4000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요트전문회사다. 1989년 회사 설립 당시에는 요트 유지관리 업무를 주로 하다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요트 수입업무를 병행하게 되면서 2003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52피트급 요트를 도입했다. 그 후 국내 요트회사 최초로 고급요트 브랜드사와 딜러십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지금은 대형요트시장을 타겟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터줏대감으로 더 유명한 파워마린 김학철 사장은 해양레저의 진정한 저변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이 파워마린의 최종 목표라고 말한다.



# 영화의 바다에서 요트를 만나다!

지난 4월 24일, KIMA WEEK의 주관단체인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대표이사장 김수병)와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2013 대한민국국제해양레저워크(KIMA WEEK 2013) 행사와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의 요트 선상에서 이색적으로 진행, 체결된 양측 업무협약의 내용은 공동 홍보와 마케팅 방안 마련하여 양 기관의 행사가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KIMA WEEK 2013은 올해 행사기간 중 **마린 비프존 MARINE BIFF ZONE**, **부산국제영화제 연계 요트 쇼케이스** 등 두 가지 아이টে็ม으로 제18회 국제영화제와 연계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국내의 방문객들을 통해 해양레저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영화제의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한층 다이나믹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진마리나

[www.hanjinmarina.com](http://www.hanjinmarina.com) T. 070. 7861. 8305 / 8304

한진해운에서 선박정비 및 보급 등 종합선박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기업인 (주)한진에스엠의 마리나 브랜드다. 120척에 달하는 상선을 관리하고 있는 선박관리 전문회사다. 200여명의 해기 전문인력과 고도의 관리시스템, 상선 분야에서 쌓은 60여 년의 관리 노하우를 통해 요트 및 보트 관리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라마리나 선박수리소를 시작했다. 선체, 기관, 인테리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요트·보트를 유지 및 관리할 뿐 아니라, 요트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국내 해양레저 선진화를 이끌고 있다.

## 부산국제영화제 연계 쇼케이스

영화제 전용상영관인 영화의 전당 광장과 비프빌리지 두 곳에서 열흘간의 요트 쇼케이스가 진행된다. 국내 요트생산업체 5개사에서 참여하여 국제영화제 참가자들이 육상에서 요트를 접하고 기념촬영 등을 통해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간** | 2013. 10. 3(목) ~ 10. 12(토)

**장소** | 영화의 전당 더블콘 옆 광장(해운대 센텀시티 내), 비프빌리지 KIMA WEEK 홍보관 옆(해운대 해수욕장 해변)

전시장소	참여업체
영화의 전당(광장)	현대요트 - 시그니처 675
	광동FRP - 카타마란 요트 슈퍼리어
BIFF Village	연합SB - 덩기요트 WINDA
	디텍 - 카타마란 요트 '디켓'
	흥진TND - 우든요트 골든 트라우트, 챌린저



광동FRP



현대요트

### 광동FRP산업

[www.grp.co.kr](http://www.grp.co.kr) T. 051-831-2266

광동FRP산업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소재로 하여 특수선박 및 레저선박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로서 20여 년의 기술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초고속 보트, 호화 세일링요트 등을 제작하고 있다. 끊임없는 생산공법 연구개발, 품질개선, 제품수리 및 관리를 통하여 2012년 국내 최초로 '32피트 카타마란 요트'를 수출하여 해외 레저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SB

**(주)연합SB**

T. 010-3578-8004

경남 함안의 옥조, 세면기 제조회사 연합SB(주)가 딩기요트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2010년 10월 개발에 착수해 2011년 1월에 완성된 딩기요트 WINDA(윈다)는 우리나라의 바다환경, 레저문화에 맞게 1~2인승 레저 및 경기용으로 개발되었다. 뛰어난 FRP 성형기술을 보유한 연합SB가 부산의 디자인기업 아트헨즈의 요트디자인을 현실적으로,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디텍



흥진TND

KIMA WEEK와 부산MBC가 함께 만드는  
신개념 해양버라이어티 '바다야 놀자!' 제작현장

# 바다랑 노는 3MC

## 바다에 대한 3가지 이야기

바다와 함께 신나게 놀고  
바다의 풍성함을 만끽하는  
바다야 놀자!!  
국내 최초 해양버라이어티  
바다야 놀자!!  
오늘은 부경대학교 100명의 학생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Wow ~~~~~

유난히도 더웠던 2013년의 여름,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쯤은 여름휴가를 떠났을 무렵,  
뜨거운 광안리 해변을 흔들어 깨우는 우렁찬 함성이 있었다!

부산MBC가 기획하고, 지난 5월 23일부터 제작에 들어간  
신개념 해양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바다야 놀자'의 촬영현장

100명이 넘는 참가 대학생과 스태프들,  
그리고 구경 나온 시민들까지 들었다 났다 하는 개성 만점의 MC들!

파이팅 넘치는 MC뽀, 감칠맛 나는 입담의 개그맨 송은이  
그리고 명품 몸매를 자랑하는 모델 출신의 이수정이라는 제법 구성진 조합!  
한 눈에 봐도 바다와 잘 어울리는 이들과 크루즈 요트 위에서 만났다.  
요즘 이들이 함께 놀고 있다는 바다... 과연 어떤 친구일까?



# 해양레포츠쇼 바다야 놀자





# Interview

## Information

### 해양버라이어티 '바다야 놀자'

푸른 젊음과 뜨거운 열정,  
해양레포츠 메카 광안리의 부활 프로젝트!  
국내 최초로 바다 위에 세트를 설치하고 플라이보트,  
제트스키, 요트, 카누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게임에  
접목시켰다. 지난 5월부터 촬영을 시작해 6월초 첫 방  
송과 함께 부산의 대학생들은 물론, 지역 방송계에 핫  
이슈가 되었던 '바다야 놀자'는 부산의 9개 대학이 참  
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1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총 7개 라운드를 통과하  
면서 최후의 승자를 가려내는 서바이벌 게임으로 영예  
의 1등에게는 각 대학이 지급하는 장학금이 수여되고,  
2등은 부산-오사카간 크루즈 여행권이 지급된다.

방송시간 | 본방 - 토요일 오전 9시 40분

재방 - 일요일 오후 4시

제작 | 부산MBC 연출 | 김장원 윤성준 원혜영  
작가 | 김현희 송지은

'바다야 놀자'는 부산mbc 홈페이지  
[www.busanmbc.co.kr](http://www.busanmbc.co.kr)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Q. 웬지 세 분 모두 바다랑 잘 어울리는 이미지다. 서로들 어떻게 생각하니?

이수정 송은이 언니는 정말 바다를 닮았어요.  
마음이 넓고 편안하잖아요.

봄 맞아요. 소금 같은 사람이죠.

송은이 뭐야, 짜다는 애긴가?

봄 No~ 소금은 바다에서 나는 금이죠.  
꼭 필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귀한 사람이란 뜻!

송은이 Really?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대들이 그렇다니 그런 걸로.  
수정씨는 어떤 이미지일까?

봄 수정씨는 전설 속의 인어공주!

송은이 맞아, 우리 녹화현장의 모든 남학생들의 로망이지.

봄 명품 몸매잖아요. 다리가 광안대교랄까... 나는?

송은이 봄은 에너지 자체가 바다를 닮았어요.  
봄의 파이팅은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대학생 100여 명과 하루 종  
일 흐트러짐 없이 촬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봄이니까 가능한거지!

봄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해삼을 닮았군요. 바다의 산  
삼! 스태미너에 최고죠 ^^.

### Q. '바다야 놀자'를 통해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경험했어 거다. 해양레포츠 좋아하니? 매력이 뭔가?

이수정 일단 물에서 하는 레포츠가 운동효과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즉, 다이어트에 최고죠. 태양아래 구릿빛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좋구요.



**송은이** 이런 쟀장~ 아직 자외선이 두렵지 않은 나이란 얘기군.

**블** 저는 원래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양수도 많았다고...  
농담이구요, 일단 해양레포츠는 모든 감각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바다라는 자연과 온몸을 접촉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인지 바다를 조금씩 닦아가는 것 같아 좋아요.

**송은이** 해양레포츠는 함께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학생들이 금방 친해지고 팀워크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지만, 해양레포츠를 통해서 즐거운 관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바다에 한번 떨어뜨려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레포츠를 함께 즐기다보면 다 풀리고, 마음이 열릴 거예요.

**Q. '바다는 나의 에너지다! 왜냐하면 \_\_\_\_\_' 당신의 이유를 듣고 싶다!**

**이수정** 맛있는 해산물의 보고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특히 문어!

**송은이** 바다는 쉬지 않아요. 일상에서 지치거나 정체감을 느낄 때, 바다를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고 다시 회복되죠.  
바다는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한결같은 친구다!

**블** 음~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예요.

**송은이** 제대로 잘 배웠군요.^^

**블** 북쪽만 빼면 어느 방향으로 가도 바다가 있어서 참 좋아요.  
바다를 보면 행복해지고, 즐겁고 기뻐요!  
이유는 나도 몰라요.  
저는 즐거워야 힘이 나는데, 바다는 제게 언제나 '즐거울 락' 이예요.  
내게 바다의 에너지는 락(樂)이다!

**송은이** 그런 의미에서 부산은 참 부럽네요.

바다와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블** 개인적으로 부산은 정말 멋진 해양도시로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계 어느 도시도 부럽지 않을 거예요.

바다랑 친하게 만들어준 '바다야 놀자' 고마워~!

# 해양레저산업의 혁신바람, 파워보트계 이노베이터

## 디텍 & (주)흥진티엔디

지난 6월,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3경기국제보트쇼는 국내 해양레저기업들이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해 혁신제품상을 시상했다. 올해도 2회째를 맞는 혁신제품상은 국내 해양레저기업의 기술개발 동기부여와 우수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올해의 혁신제품으로는 디텍의 디켓(Dcat), 삼영이엔씨(주)의 스마트시스템, (주)씨케이아이피엠의 AM3<sup>®</sup> 알루미늄 부잔교, 에스텍마린(주)의 장보고 트레일러, (주)흥진티엔디의 캘린저22 등 5개 제품이 선정되었다.

특히, 디텍과 (주)흥진티엔디는 파워요트전문기업으로서, 정부지원사업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40억 원(31척)의 사업화를 달성해 낸 주목받는 부산의 향토기업이기도 하다.

국내 해양레저산업을 이끌어갈 두 업체의 CEO에게 KIMA plus가 인터뷰했다.



회사소개 | 디텍(대표 이영일) T. 051-831-6880

2006년 보트 및 요트 디자인 전문회사로 창업하여 2008년 중소조선연구원 해양레저장비센터에 입주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선박제조분야에 뛰어 들었다. 국내 일반적인 소형조선소와 달리 선박건조가 가능하며 디자인, 3차원설계, 조선공학적 체계산과 같은 설계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대표를 포함하여, 디자인 및 조선공학 분야의 박사급 2명, 석사급 1명을 보유하고 있는 젊은 기업으로, 주요제품으로는 쌍동형 카타마란 딩기(16ft:A-Class)와 체험관광용 고속제트보트(MEGARIDE 7.0)를 들 수 있다.

### Q1. 지난 7월, 귀 업체가 만든 보트가 수명만 요트경기장에서 진수 식을 가졌습니다. 어떤 제품인지요?

A. 이영일 대표 | 디텍 \_ 국내의 경우, 선박은 주로 수주 후에 개발 및 생산을 하게 되는 주문생산 시스템이나, 당사 고속제트보트(MEGARIDE 7.0)는 마치 자동차와 같이 개발을 선행하고, 이후 판매하는 영업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하였으며, 레저선박 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CE(유럽기준)인증을 획득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판매에 주안점을 둔 제품입니다. 또한 브랜드로서 해외에 판매한 공식적인 첫 사례이기도 하죠. 론칭과 동시에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중국 및 국내에 공급계약이 상담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제트보트는 일반적인 파워보트와는 다르게 워터젯 추진기를 장착한 선박으로, 해외 체험관광시장에 주요한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 미국, 캐나다 등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관광상품으로 최근 동남아 관광시장에도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Q2. 세계적으로 해양레저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세계 보트 시장에서 국내기술이나 제품의 현주소는 어디쯤입니까?

A. 해외제품의 경우 디자인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선체의 표면은 매우 매끈하고 미려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의 경우 디자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열악한 환경, 낮은 수준의 재료 등으로 제품의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제품생산에서도 수입 원자재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국내 원자재 생산업체도 기술향상 및 다양한 기능성 제품개발에 착수하고 있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 Q3. 해양레저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업체나 기관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자동차, 레저선박과 같은 소형 운송기기의 경우, 자국의 수요기반을 배제하고는 성공할 수 없는 산업분야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폭발적인



해양레저시장을 형성한 미국의 경우, 중산층의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요트와 비키니 미녀라는 환상을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도 요타자동차의 성공 또한 일본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에도 해양레저와 관련한 관심과 미디어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됩니다. 10여 년 전부터 국민의 연소득에 따른 국내 해양레저시장을 낙관하는 전망이 계속되었으나, 연소득이 증가하여도 해양레저시장은 기대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형성된 시장도 폐선 직전인 일본 중고선박이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이 확대되더라도, 저가의 중국제품이 선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시장의 형성은 기대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준비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레저산업을 일반산업과 개념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해양장비를 운용하는 가까운 위치에 생산, 수리, 유통, 서비스산업이 클러스터화 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 산업과 소비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해양레저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학계와 산업계, 지원기관 할 것 없이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Q4.** 귀사가 기업으로서, 디자이너로서 최근 관심을 가지고 주력하는 분야는 어떤 영역입니까? 그리고 다음 단계로 도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A. 해외 바이어의 NEEDS에 따라 고속제트보트(MEGARIDE 7.0)의 후속모델(MINI-ZET)을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중국 상하이 보트쇼를 시작으로 해외홍보를 준비 중입니다. 초기 기본설계 및 디자인은 해외바이어 및 호주 기술협력업체와 긴밀히 조율하여 디자인 되어졌으며, 디자인결과에 대해 매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Q5.** 개인적으로 가능해 볼 수 있는 '마이보트시대 부산'의 미래상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A. 부산은 전국에서 해양레저를 위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주 골드코스트나 미국 마이애미에 비해 손색이 없습니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 해양레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습지를 매우거나 혹은 대량의 준설과정이 요구되어 천문학적인 토목비용이 요구되나, 부산은 수영만이나 여러 해수욕장 이외에도 낙동강 하구일원(을숙도, 명지), 가덕도 등 도심을 제외한 대부분이 해양레저 인프라를 갖추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서해 및 동해와 비교할 때 무엇보다 원도심의 인구가 짧은 시간에 해양레저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일반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부산은 해양레저 메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해양수도는 부산이니까요. 부산시민은 바다를 놀이터로 자랐으며, 바다에 친숙하며,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경우, 주요한 수입원으로 관광 시장을 들 수 있으며, 해양레저는 부산의 보는 관광, 머무는 관광에서 체험형 해양레저 관광이라는 또 다른 상품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중요한 관광 상품으로서 부산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제품소개** | 디텍의 디켓은 고성능 섬유인 카본(Carbon)과 진공수지 이송법(Vacuum Infusion)을 적용한 국내 최초 1인승 16ft 카타마란 딩기이다. 블록(Block)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기압 자체 설계 제작으로 이루어졌다.





회사소개 | (주)흥진티엔디(대표 정량)

T. 051-831-0657 www.hjwoodenboat.com

1998년 창업하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 등 국내외 주요조선사의 협력업체로 선박건조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을 연구, 개발해왔다. 중국, 동남아, 유럽, 남미 지역으로 수출되어 그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주)흥진티엔디는 2009년에 사내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직접 선박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돌입, 2010년부터 요트사업부를 신설하고 기존의 보트, 요트시장과는 차별성 있는 클래식 우든보트(Classic Wooden Boat)를 컨셉으로 관련 디자인과 자체공법개발을 완료,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개발완료된 대표적인 보트, 요트로는 26피트(8m)급, 22피트(7m)급, 18피트(6m)급, 16피트(5m)급의 중, 소형 클래식 우든보트가 라인업되어 있다.

**Q1.** 경기보트쇼에서 혁신제품상을 수상한 'Challenger 22' 가 가지는 경쟁력을 무엇입니까?

A. 정량 대표 | (주)흥진티엔디 \_ Challenger 22는 바다 위를 달리는 고급세단을 컨셉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선박건조용 특수목재와 현대적 복합재료를 융합한 신공법으로 제작된 국내 최초의 22피트급 우든보트입니다. 공정의 처음에서 끝까지 100%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핸드크래프트 제품으로 선박의 구석구석에서 기술자들의 정성어린 손길과 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마감재로 마호가니 원목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FRP보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6~7인이 여유있게 크루징을 즐길 수 있도록 구획된 구조가 편안함을 더합니다. 선수부에는 성인 2명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물놀이 후 간단히 몸을 씻을 수 있는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아웃보드 엔진(선외기) 90마력~220마력에서 옵션사양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150마력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FRP보트로 가득한 국내시장에서 친환경적인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고급 우든보트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Challenger22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Q2.** 앞으로 해양레저장비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국내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 세계적인 조선강국의 명성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국내 해양레저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조선업계에서 중국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조선시장의 세계적인 흐름 역시 호황과 불황이 번갈아 보이는 시점에서 대형 선박 중심의 중공업 위주의 정책에서 중소형 레저보트 시장으로의 정책적 지원과 시장 확대가 그 대안이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여가문화의 발달에 힘입어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기 때문에 업계의 노력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내의 해양레저 장비 및 완제품 생산 업체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해양레저시장에서 값싸고 질 좋은 수입품들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





**제품설명** | 진티엔디의 챌린저22는 자체 기술 개발과 건조를 완료한 22ft 파워보트다.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럽풍 모던 클래식 우든보트(MODERN CLASSIC WOODENBOAT)로 전통 목조선박의 장점을 살리고, 현대적 복합소재와 조합을 통해 건조기술 및 공법의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이다.

제에 대한 타개책의 하나로 동남권 지역(부산, 경남)의 부품, 소재, 디자인, 완제품 연구기관 등이 하나로 묶인 클러스터의 결성이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클러스터들이 완제품 중심의 단발성 프로젝트 형식으로 끝나는데 그치지 않고 보트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융합형 클러스터 구축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확대가 절실합니다. 현재 국내의 마리나 수(2010년 기준)는 14개 소로 미국 11,000개소, 독일 2,700개소 등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레저 보트산업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Q3. 귀사가 기업으로서, 디자이너로서 최근 관심을 가지고 주력하는 분야는 어떤 영역입니까? 그리고 다음 단계로 도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A. 현재 28FT급 wooden house boat의 건조를 계획 중입니다. 하우스보트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현지의 여건에 맞게 발달 되어 보트문화의 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캠핑 및 아웃도어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이러한 아웃도어 문화는 산이나 강, 바다 등을 끼는 수변문화의 형성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하우스보트가 캠핑문화와 수상레저문화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하우스보트는 말 그대로 house와 boat의 합성어로 물 위에 떠다니는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 위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침실, 싱크, 화장실, 레인지, TV 등이 구비되어 있고 낚시, 휴양, 수상레저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하우스보트의 건조를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구상 중이며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첫 건조가 들어 갈 예정입니다.

### Q4. 개인적으로 가능해 볼 수 있는 '마이보트시대 부산'의 미래상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A. 부산은 해양레저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은 예전부터 국내 최대의 항구도시로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고 현재는 국내 최대의 마리나 시설(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갖춰 각종 국제 대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 레저시대의 허브로 자리 잡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는 국내 완제품 생산업체의 약 절반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80%가 집중 되어 있어 해양레저시대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양레저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부산지역은 기존의 해양레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 해양 레저 수요의 최대 공급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풍부하고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비롯한 기존의 인프라와 결합하여 각종 전시회와 대회 유치를 통해 부산이 해양레저의 수도로서 발돋움 하리라 기대됩니다.

*BRAVO*

마이 요트라이프

현대요트로 미리 만나는  
마이요트시대 이야기



# Life style. 01

경기도 수원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대형바이어와 100만 불 계약을 성사되어 입가에 미소가 가시지 않는다. 해외바이어가 올 때마다 골프, 승마 등으로 접대를 했지만, 이번엔 평소와 달리 크루즈요트로 손님을 맞았다. 한국과 달리 요트문화에 익숙했던 미국의 바이어는 크게 만족했고 계약도 기분 좋게 진행되었다. A씨는 해외바이어 접대뿐 아니라 국내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요트 미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크루즈요트 ASAN45’ 전장 14m 크기의 크루즈요트로 거실, 주방, 침실 2개, 화장실 2개 등 선상에서도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편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럭셔리한 선상파티가 가능하다. A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코발트 에머랄드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한다.



# Life style. 02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B씨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올 봄에 구입한 낚시보트 때문이다. B씨는 올봄에 낚시보트 한척을 구입했다. 매년 인천항에 가서 낚시배를 타고 20~30명의 낚시인들과 바다낚시를 즐겼는데, 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낚시줄도 서로 엉키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자유배낭여행에 익숙한 사람이 단체패키지여행에 가면 엄청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까. 바다낚시에 큰 흥미가 없는 와이프를 설득하기 위해 B씨가 선택한 낚시보트는 현대요트의 시그니처 602F. 그가 낚시보트 시그니처를 선택한 이유는 보트의 콕핏이 깊어서 오랫동안 낚시를 해

도 편하고 아이들이 타도 안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실이 있어서 여성이나 아이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B씨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B씨의 아이들도 보트를 탈 때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재미있으면서 바다로 나갈 때마다 따라나선다고 한다. 레저와 낚시 모두를 할 수 있는 7인용 낚시보트 시그니처 602F를 구매한 B씨는 올해 가을부터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낚시배를 타지 않아도 된다. 시그니처의 연비는 1리터당 2~3km이지만 크루즈요트와 달리 크기가 작기 때문에 B씨는 연료걱정은 그리 많이 하지는 않는다.





# Life style. 03

경기도 안산에 본사가 있는 대기업 대표 C씨, 그는 직원들의 사내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리조트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비교검토를 하다가 결국 요트회원권을 구매했다.

얼마 전에 방영된 요트관련 TV프로그램을 보고 요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요트를 구매하자니 취득세, 등록세에 유지관리비용까지 여러모로 번거롭다는 생각에 망설이고 있던 차에 '요트이용권'이라는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회사의 위치가 경기도 안산에 있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먼 서울에 있는 요트클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고 가까운 화성시 전곡항의 클럽 현대 요트에 입회하였다. 요트회원권은 골프클럽 회원권, 승마클럽 회원권과 달리 이용하는 사람이 특정 기술과 경험없이도 요트에 탑승하여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C씨는 요트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럭셔리레포츠라 그런지 직원들이 요트를 경험하면서 부쩍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보인다고 말했다. 직원들 역시 이색적인 경험이라며 요트에 관심과 호응을 보이기도 했다.



Information

## 클럽현대요트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요트차터업을 운영하고 있는 클럽현대요트는 국내최초 요트 전문 제조사인 현대요트(주)가 제공하는 회원제 요트클럽으로 자체 소유하고 관리하는 요트들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클럽 현대요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트는 총 8척으로 선상파티가 가능한 럭셔리크루즈요트인 아산42(ASNA42) 1척과 낚시와 레저가 가능한 보트인 시그니처(Signatru) 7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산42는 거실, 선실, 주방, 화장실 등이 있어서 생활이 가능하며 시그니처 보트는 가족이나 지인들끼리 바다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8척의 요트 외에도 세일링요트 등도 제후를 통해 제공이 가능하므로 클럽회원들은 다양한 종류의 요트를 이용할 수 있다. 성수기인 봄, 여름, 가을 외에도 화성 근처의 골프장, 승마클럽, 호텔리조트도 이용가능 하기 때문에 안산 소재에 있는 대표이사C는 요트회원권에 아주 만족도가 높다.

### 요트회원권 및 제품상담 문의

T. 031-8047-5084 / 02-561-1975 www.club-hdyachts.com info@hdyachts.com



# 이제 부산을 KIMA CITY라 부른다

KIMA CITY : Korean International Marine City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해양도시



대한민국 제일의 해양도시 부산  
 그 가운데 KIMA WEEK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가 열리는 주 무대는 해운대 그리고 광안리!  
 부산의 대표적인 해변이며, 해양레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지이기도 하다.  
 이 두 지역이 KIMA CITY(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해양도시)로 더욱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해양레저스포츠, 해양관광, 컨벤션 등 해양을 통해 창조경제를 일으킬 만한 포텐셜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출항하는 KIMA WEEK의 시티투어 포인트를 소개한다.





## Haeundae CENTUM CITY ● 센텀시티

해운대구 수영강변 35만 평의 터에 조성된 정보통신, 영상, 오락, 국제 비즈니스, 상업, 주거, 관광,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첨단 복합산업단지이다.

부산을 대표하는 컨벤션홀인 BEXCO와 영화의 전당은 물론,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등이 들어서 있다.

KIMA WEEK 기간 중에는 인근 수영강에서 코리아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가 펼쳐지기도 한다.

## Busan Cinema Center ● 영화의 전당

센텀시티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이자 아시아 영상문화의 메카로 2011.9.29.에 개관하였다. 시네마운틴, 비프힐, 더블콘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야외상영장의 지붕인 빅루프는 12만 개의 LED 조명으로 만들어져 수영강의 일렁이는 물결과 어루어진 영롱한 빛의 물결을 연출한다.

무엇보다 KIMA WEEK가 열리는 일주일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기간과 맞물리는 덕에 해양레저와 영화라는 두 개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KIMA WEEK 조직위원회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과 영화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더욱 풍성한 아이템들을 기획 중이다.

### Information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7(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민락역)  
t. 051-780-6000 www.dureraum.org

## BEXCO ● 벅스코

BEXCO(Busa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는 연면적 92,761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구성된 국제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이다. 국제전시회 및 국내전시회, 대규모 회의, 공연, 이벤트, 스포츠 행사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BEXCO 제1전시관을 개장하면서 일 년 내내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를 담아내는 대한민국 마이스산업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근접한 거리에 해양을 낀 특급호텔, 리조트, 마리나 시설 등을 두고 있어 해양을 주제로 한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일으키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그릇으로 기대된다.

### Information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291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 역  
t. 051-740-7300 www.bexco.co.kr

## Nurimaru APEC House

### ● 누리마루 APEC하우스

2005년 11월 18~19일에 열린 제 13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곳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곳이다. 건물 전체 조형은 한국 전통 건축인 정자를 현대식으로 표현하였고, 지붕은 동백섬의 능선을 형상화하였다. 외부 사선 기둥(12개)은 Dynamic Busan의 역동성을 나타내고 내부 장식은 한국의 창조적 전통문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정상회의 참가자들과 국내외 언론들에 의해 역대 APEC 정상회의장 가운데 풍광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2005년 11월 20일 이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며, 다양한 국제회의가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 Information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14-1 동백섬 내(지하철 2호선 동백역)  
누리마루 현장 사무실 t. 051-744-3140



## Diamond Bridge ● 광안대교

샌프란시스코에金門교가 있다면 부산에는 광안대교가 있다. 국내 최대규모의 복층구조 현수교인 광안대교는 해안선을 순환하는 도로망의 확충과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1994년 착공되어 2003년 1월 개통한 총 연장 7.42km(현수교 0.9km, 접속교 6.52km)의 자동차 전용교량이다. 환상적인 야간 조명이 해수욕장의 야경과 어우러져 부산의 랜드마크가 된 광안대교는 해운대 방향의 하층과 용호동 방향의 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낮에는 주변에 위치한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의 조화를 보여주고, 밤에는 낭만과 휴식의 야경을 제공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 Busan Cruise

### ● 부산연안 크루즈선 '누리마루호'

누리마루호는 19세기의 네덜란드 범선을 재현한 '크루즈 유람선'으로 해양도시 부산의 새로운 명물이다. 최대 360명까지 관광객을 태울 수 있는 누리마루호는 부산 연안 크루즈는 물론 선상웨딩, 선상 세미나를 겸비한 파티를 비롯, 선상 재즈카페,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오륙도 주경코스과 부산항 야경코스로 즐길 수 있다.

#### Information

**오륙도 주경코스** 연안여객터미널 → 북항대교 → 국립해양박물관 (영도)기항 → 오륙도 → 연안여객터미널

요금 | 왕복 성인-26,000원 소인-20,000원(만24개월 이상 초등학생까지)

편도 성인-13,000원 소인-10,000원

출발시간 | 13:30 15:30(예약 필수) ※오전 운항·단체 승선은 별도 협의

**부산항 야경코스(왕복 1시간 50분)** 연안여객터미널 → 북항대교 → 해양박물관 → 조도 → 연안여객터미널

요금 | 성인-22,000원 소인-17,000원(만24개월 이상 초등학생까지)

출발시간 | 18:00~19:00(예약 필수)

**예약 및 문의** | 테즈라센터텔레비크루즈 1688-7680





# Busan City Tour Bus ● 부산시티투어 버스

## Information

### 승차권 구입처

인터넷예약 | [www.citytourbusan.com](http://www.citytourbusan.com)

전화예약 | ARS 1688-0098, TEL 051-464-9898

현장구매 | 미예약시 각 정차지에서 선착순으로 버스 내 운전기사에게 승차권 구입 가능

(※ 단, 을숙도와 야경코스는 부산역 승강장에서만 구입가능)

예 약 자 | 버스 탑승시 운전기사에게 직접 예약된 승차권 수령  
티켓수령 | 당일예약 불가

### 운행시기

연중 운행(매주 월요일은 휴무)

※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행

### 탑승요금

1일 이용권 | 성인 10,000원 / KTX할인 8,000원 /  
단체할인(성인 10인 이상) 8,000원

### 승차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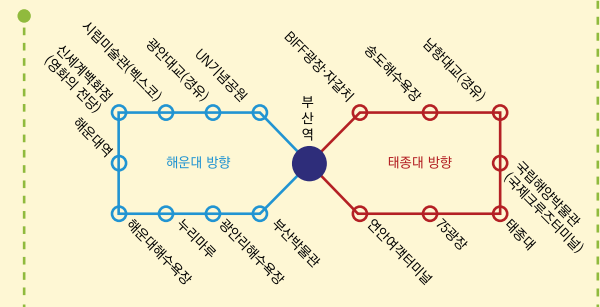
부산역 광장 아리랑관광호텔 앞(지하철1호선-부산역 8번 출구,  
기차-부산역1번 입구)에서 출발

코스별 정류장에서 승하차 가능

(※을숙도 자연생태코스, 야경코스는 부산역 승강장에서만 가능)

### 운행코스

#### 순환형 코스



#### 테마형 코스

- 역사문화탐방 코스**  
1 부산역 - 2 골드테마거리 - 3 서면 - 4 북천박물관 - 5 금강공원 - 6 범어사 - 7 변영로 - 1 부산역
- 해동용궁사 코스**  
1 부산역 - 2 광안리해수욕장 - 3 해운대해수욕장 - 4 달맞이고개 - 5 송정해수욕장 - 6 해동용궁사 - 7 광안대교 - 1 부산역
- 을숙도자연생태 코스**  
1 부산역 - 2 영도대교 - 3 남항대교 - 4 송도해수욕장 - 5 압남공원 - 6 다대포-물문대 - 7 야미산 전망대 - 을숙도예코센터 - 9 BIFF광장-자갈치 - 1 부산역
- 야경코스**  
1 부산역 - 2 광안리해수욕장 - 3 해운대해수욕장 - 4 달맞이고개 - 5 광안대교 - 6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 1 부산역



# KIMA+

# *Reports*

Proposal   Research-DIDIC   Marine DB

# 부산의 해양레저산업, 잠재력과 전망



우 석 봉 박사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산업·인프라·서비스 3위 일체  
융합성장 통한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새 물길을 개척하라!  
”

Proposal 01

글로벌 해양레저산업의 잠재력은 의외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형)조선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연간 약 600억불, 해양레저장비산업은 연간 약 500억불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장세는 요트 등 레저장비를 위주로 한 해양레저산업이 더 큼니다. 전문가들조차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해양레저장비산업이 조선산업을 압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그 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부산지역의 흥망성쇠는 부산이 미래에 어떤 산업으로 먹고 살 것인가? 라는 향후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어떻게 육성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의 성패는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의 경제인들 또한 시대 흐름을 잘 읽어 대처해야 합니다.

한 때 잘 나가던 '제2의 도시, 부산' 이 왜 이렇게까지 됐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전의 목재산업과 신발산업이 맥없이 추락한 경험을 봐서라도 산업계 리더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곳이 바로 호주의 골드코스트입니다. 골드코스트는 2000년에 북쪽 쿠메라 강변 지역의 250헥타르를 보트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개발해 2007년 현재 지정면적 중 90헥타르가 개발되어 70개 보트 및 연관기업이 입주해있습니다. 2천7백50여 명이 상주하는 정도죠. 또한 호주 3대 보트제작업체인 리베라(Riviera), 무스탕(Mustang), 퀸트렉스(Quintrex)사를 비롯하여 호주 최대인 골드코스트 시티마리나(Gold Coast City Marina)와 여러 보트수리

업체들이 입주한 보트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해 있죠. 우리 부산권이 골드코스트같은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메카가 되지 못하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해양레저산업이 부산의 미래비전 역할을 하려면 해양레저장비 산업과 해양레저 인프라, 그리고 해양레저서비스가 '3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부산권의 해양레저산업을 대표하는 요트산업을 살펴보면 요트산업은 산업구조상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트는 자동차 산업에 근접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그리고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발달한 부산권은 요트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레저산업을 부산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조선산업이나 조선기자재산업 관련 기업들이 요트 등 해양레저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산지역에는 중소조선소, 조선기자재 및 기계부품산업, 각종 선급회사, 설계회사, 선박수리업, 대학 조선공학과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잘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레저산업을 부산권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인 마리나 시설 확충과 더불어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을 모태로 한 요트 제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합니다. 부산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수영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요트경기장을 건립했어 요. 부산은 이러한 시설을 기반으로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할 수도 있었으나 산업화로 연결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재 부산시는 노후화된 수영만 요트경기장 시설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동강을 활용한 해양레저시설 확충, 용호만 매립지의 해양레저공간 조성, 다대포항 일원의 해양레저공간 조성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종료되면 마리나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해양레저서비스업은 해양레저장비, 마리나시설 구축 등을 기반으로 활성화됩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해양레저서비스업은 초기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어디에 가야 해양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타 지

역에서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경우는 더하겠지요.

이러한 해양레저서비스업이 사업화 되지 않는 이유는 비즈니스로서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각종 어촌계 등 각종 해양규제 때문에 비즈니스로 활성화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부산이 가진 잠재력이 극대화되고 해양레저를 활용하여 부산이 미래에 부자도시로 나아가는 등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바다라는 자연을 해양레저산업이라는 보물로 바꾸어야 하는 과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2012년 출범하였고 해양·산업·문화가 융·복합화된 2013년 대한민국국제해양레저위크(KIMA WEEK 2013)를 기획하고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축제!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해양레저축제를 지향하는 KIMA WEEK의 성공적인 개최의 일환으로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KIMA WEEK에 국내의 감독, 배우, 미디어, 영화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요트를 활용하여 비즈니스와 관광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BIFF에 참가하는 일반관람객들에게도 요트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레저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칸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등 세계적인 영화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요트와 영화의 만남이 부산의 문화 아이콘인 BIFF에서도 실현됨으로써 BIFF의 위상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관하는 KIMA WEEK 2013은 해양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내 해양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해양문화와의 융복합화를 통해 진정한 창조경제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함으로써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와 해양수도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 부산 그리고 해양레저산업 미래전략



심 상 목  
중소조선연구원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장

## Proposal 02

### ● 서론

최근 해양레저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일찌감치 해양레저장비개발을 위한 R&D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새로 발족된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해양레저산업 육성 정책수립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레저산업은 걸음마 단계로 마리나 등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규제법령 등의 제도개선, 내수공급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업육성 등에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 해양레저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 ● 해양레저산업의 현황

해양레저산업은 해양 및 수상에서 즐기는 레저산업을 총칭하는 산업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 규모는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등록된 사업장의 경우 2008년 426개에서 2010년 477개로 증가하였고, 조정면허 취득자수는 2000년도 7천명, 2005년에 4만 2천명,

2012년 기준 11만명을 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해양레저 및 수상레저에 관하여 요즘 젊은이들의 선호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레저인구 및 동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마리나는 200척 이상 계류가 가능한 곳은 부산 수영만과 경기도 전곡항 2곳에 불과하고 10~60여척 계류가 가능한 소규모 계류장 1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 마리나에 계류 가능한 척수가 총 1,500여 척으로 등록된 레저선박 척수 대비 계류시설 확보율이 18%에 불과하여 마리나 시설 기반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다행히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0년 47개소의 국가 마리나항만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최근 그 중 13개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을 지정하고 6개소는 2017년까지 300억원씩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마리나는 해양관광 및 레저선박 생산, 해양레저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요트나 모터보트 같은 레저선박의 제조업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지금현재 레저선박 생산이 가능한 완성품업체는 국내 20여 군데로 추정되고, 관련 부품업체가 약 100군데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레저선박 제작기술은 산업연구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선진국대비 약 60%~70%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발달되어 있는 조선, 기계, 자동차, IT 산업이 접목되면 조만간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정부는 R&D 등 기술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야 하고, 산업계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레저선박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양레저산업의 세계시장은 약 400억불 내지 500억불 시장이다. 세계적으로 해양레저장비의 보유 척수는 약 2,300만척 이상으로 추정되고 매년 약 100만척 이상의 신규시장이 발생되며, 이러한 신규시장의 대부분을 미국, 호주, EU 등 선진국들이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웬만한 제조업은 후진국으로 이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장비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 ● 해양레저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전략

해양레저산업분야는 지금까지 민간보다는 정부에서 산업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양레저산업을 국가기술로드맵에 해양레저장비 분야를 추가하여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해양레저경쟁력강화사업 등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4년 모터보트와 요트 등에 관하여 특소세를 폐지하였고, 안전행정부는 레저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범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과를 신설하여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리나 신설, 보트쇼 개최, 산업단지조성 등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레저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양레저산업은 진입기이고 관련 업계의 영세함을 고려하여 좀 더 신속하고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해양레저장비산업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 첫째, 문화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해양레저 산업에 대하여 '부자들이 하는 사치 산업이다' 라는 등 부정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즉 바다를 천시하던 기존의 오래된 문화적 관습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해양레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여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미래의 수요자 층을 길러내야 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생들이 태권도장을 다니듯 뉴질랜드의 경우 초등학교생 대부분이 요트스쿨을 다니며 바다와 해양레저와 친해지는 교육을 받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해양레저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셋째, 해양레저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UNITEC이란 요트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해외 선진기술자

를 적극적으로 초빙해서 기존의 현장기술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빨리 전수 받게 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하다. 넷째, 타산업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국제해양레저워크(Kima-Week)가 좋은 사례이다. Kima-Week는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레저축제로서 각종 체험활동, 달빛수영대회, 드레곤보트대회, 슈퍼요트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특히 한국의 성공한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와 해양레저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 부산의 해양레저산업 가능성

부산이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우선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다. 수영요트경기장 재개발, 북항 마리나, 백운포 마리나 등 국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단지의 구축이 필요하다. 요트나 모터보트 등을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 단지가 필요하다. 또한, 해수욕장을 상시 개장하여야 하고, 해양레저장비 임대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이 쉽게 바다와 해양레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인접 시도와 연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부산, 경남, 전남의 남해안벨트에 서로 연계되는 크루징 루트의 개발 등 공동정책개발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부산의 해양레저산업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본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부산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설문조사하면 해운대, 항구, 갈매기, 부두 등 바다와 연관된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리라 생각한다. 이것은 부산의 콘텐츠가 바다와 연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부산이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한다는 공감대로 충분하다. 그리고 해양레저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 인프라, 수요자 그리고 장비 생산하는 공급자 등이 고루 발달되어야 한다.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360만명의 대도시이고 해운대, 오륙도, 태종대, 이기대 등 천혜의 해양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수영요트계류장 재개발, 북항 재개발, 백운포 마리나 건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며, 조선해양산업, 자동차, IT 산업 등이 발달되어 있어 해양레저장비의 생산 공급자 측면에서 국내 어느 도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가 부산에 위치되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한다면 부산의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매우 적합한 산업임에 틀림이 없다.

# 동남권 해양레저 콘텐츠 & 스타일

동서대학교 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  
동남권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디자인 기반 구축사업팀

##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산업이란, 스포츠분야, 관광레저분야, 레저장비분야, 조선소의 업무와 연관되는 선박생산 부문과 기타 장비 생산구분으로 구성은 되어진 산업이다.

해양레저는 통상 물에 접하여 행해지는 모든 레저 및 스포츠 활동을 지칭한다. 넓은 의미로는 해양레저 활동을 영위하기위한 관련 교육, 시설 및 장비생산까지 포함하여 해양레저는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되는 모든 레저활동으로 '해양 의존형' 과 '해양 연관형' 으로 구분된다.

해양 의존형 레저는 활동유형에 따라 스포츠형, 휴식형, 관광형으로 구분된다.

스포츠형은 다소 역동적인 레저활동으로서 보트, 파워보트,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윈드서핑,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이 이에 속한다. 휴식형은 주로 해변을 중심으로 하는 휴식과 레저를 겸하는 것으로서 해수욕, 조개잡이 등 해변가에서의 휴식과 레저를 겸하는 것으로 해수욕, 조개잡이 등 해변 동식물 채취행위 및 바다낚시 등을 들 수 있다. 관광형은 유람선과 여객선 등을 이용한 해상 유람과 관광 잠수정 및 해중 전망대 등을 활용하는 해중경관관람 등이 있다.

한편, 해양연관형은 비치스포츠, 모래놀이, 해변 레크레이션 활동과 해양경관 조망, 해양문화탐방 등이 이에 속한다.

## 동남권 해양지역 현황

동남권 지역이란 광역경제권에 따른 7개의 권역도시 중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포함하는 권역단위를 말한다.

2009년 5월 24일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개 시, 도를 인구, 산업, 인프라, 역사 문화적 동질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7개의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했다. 그리고 지역별 유망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5+2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했다. 이런 중앙정부의 구성으로 각 지역의 인프라지원과 각종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지였다. 이후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의 면적은 총 12,343.7km으로 전국의 1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바다와 인접한 동남권은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된다.

우리는 동남권 해양지역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동남권에 분포된 주요 해수욕장 50곳을 조사하여 각 지역별 해양레저환경의 특성과 해양장비 및 해양레저시설 현황을 정리해보았다.

부산(8)	울산(5)	경상남도(27)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정, 송도, 태종대, 일광, 임랑	정자, 주정 몽돌해안 일산, 진하, 강동해안	구조라, 와현, 남일, 통영 비진도, 명사, 상주, 여차, 은모래비치, 덕포, 거제학동, 통영공설, 흥남, 송정솔바람, 망치해변, 항목해변, 두곡, 죽림, 통영죽도, 대항, 구영, 항도몽돌, 황포, 봉암, 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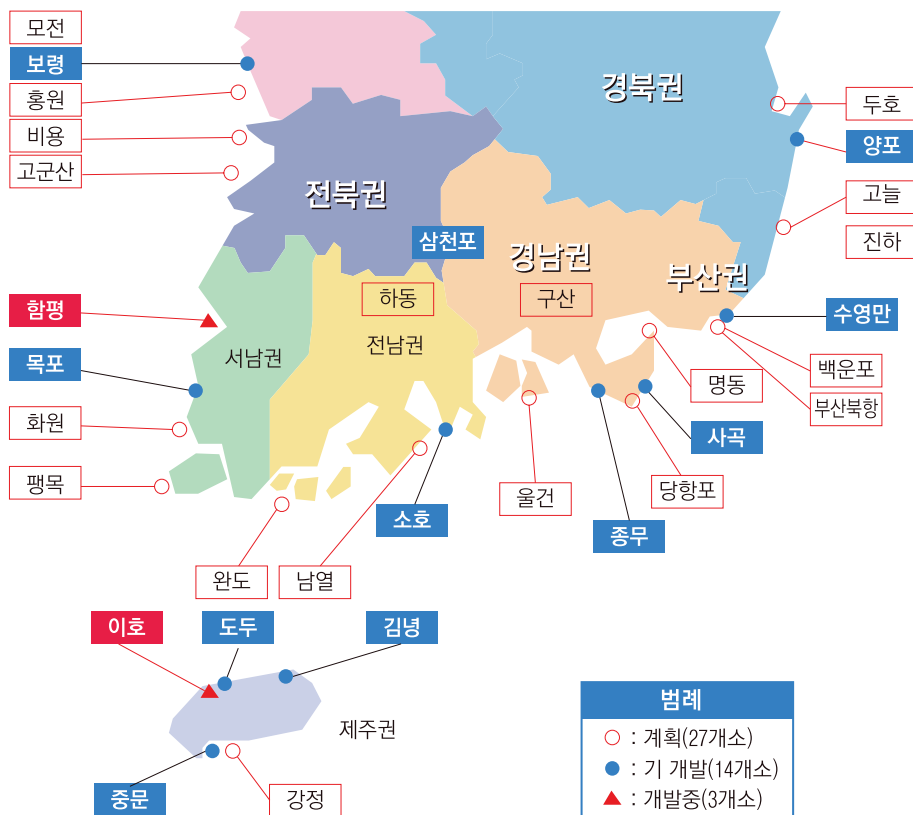
**남해안**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며 남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깊어지고 평균수심이 약 100m이다. 그리고 많은 섬과 해식애가 다양하게 발달되었다. 광양만 사천만 해남반도 고흥반도 등 만과 반도가 발달하였다. 사빈발달이 빈약하여 자갈로 형성된 해수욕장이 많고 해식애가 발달한 곳으로 거제도 해금강과 부산 태종대 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거제도 완도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 다도해지역을 이루고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의 조화로 많은 지역이 다도해 및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동해안**

해안선은 서, 남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조로우며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발달해 수심이 급격히 깊어진다. 해저지형도 매우 불규칙하며 대체적으로 굽은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포, 화진포 등이 있고 전 해안선에 백사장이 발달하여 해수욕 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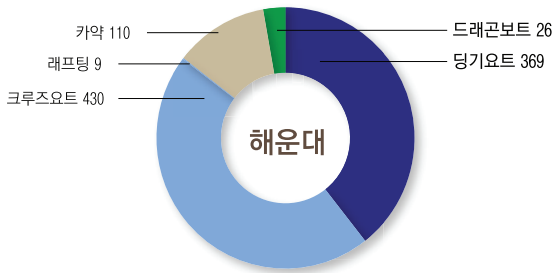
**동남지역 마리나 사업 추진 현황**



## 동남권 해양지역별 특징 & 해양레저장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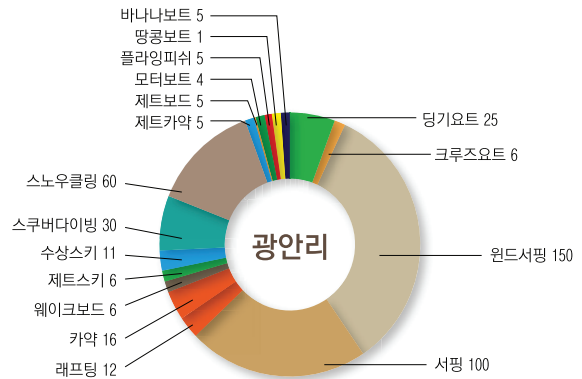
### 01 요트의 중심지 해운대 Haeundae

매년 여름이면 50~60만 명의 피서객이 모여드는 해운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양관광의 명소이다. 기네스북에 오른 수만 개의 비치파라솔이 대표적이며, 저녁에는 해변을 거니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고급호텔들이 들어서 있고, 해운대의 동쪽에 위치한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아시아권 최대규모의 요트정박장으로 최근 요트 레저 인구가 급증하면서 해운대를 찾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마천루를 이루는 빌딩들과 바다 그리고 요트가 어우러져 이색적인 경치를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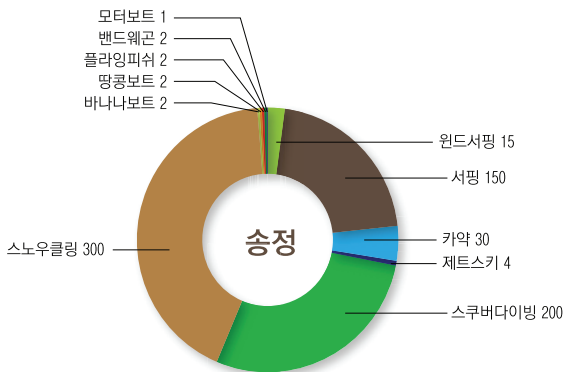
### 02 해양레포츠의 천국 광안리 Gwangalli

동남권에서 가장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변이다.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에는 약 20여 종의 장비가 갖춰져 있고, 체험과 강습이 가능하다. 특히, 광안대교가 펼쳐진 바다풍경을 배경으로 매일 다양한 축제가 열리며 젊은 아티스트들의 전시와 마켓, 길거리 공연 등도 볼 수 있다. 해변을 따라 늘어선 노천카페, 레스토랑 등은 편안하고도 이국적인 휴양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해변 왼쪽 끝에는 민락 회센터도 자리잡고 있어 식도락의 즐거움도 풍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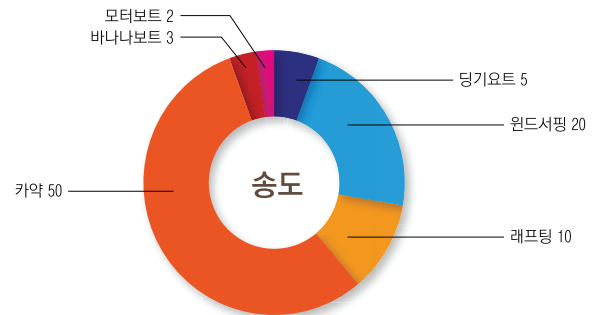
### 03 서퍼들의 낙원 송정 Songjung

동남권 지역 서핑최적지이며, 사시사철 서퍼들이 모여든다. 비교적 조용한 해변이었으나 송정터널과 울산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변에 청사포와 해운대를 잇는 달맞이길이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다. 관광레저 특구에 포함되어 2013년에 해운대송정마리나 등 해양레포츠 시설이 조성되어 사계절 서핑,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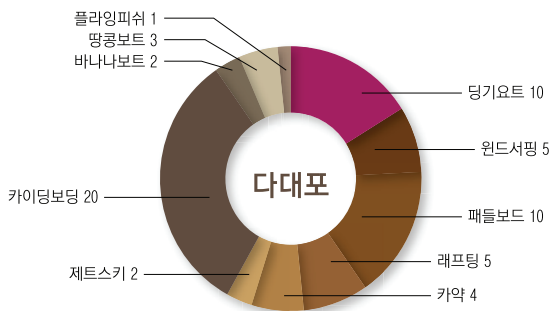
### 04 대한민국 제1호 해수욕장 송도 Songdo

올해로 개장 100주년을 맞는 송도는 전통만큼이나 운치 있는 해안선을 자랑한다. 넓은 모래사장장과 잔잔한 바다는 해양레저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며, 세계적 즐길 수 있는 해변공원도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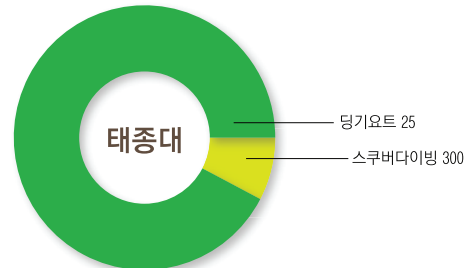
### 05 카이트보딩의 메가 다대포 Dadaepo

넓은 갯벌의 백사장과 아름다운 낙조를 자랑하는 다대포는 수심이 얕은 편이라 갯벌체험과 해양레저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곳이다. 특히 탁 트인 환경 덕분에 언제나 일정하고 깨끗한 바람이 불어 카이트보딩의 대표적인 장소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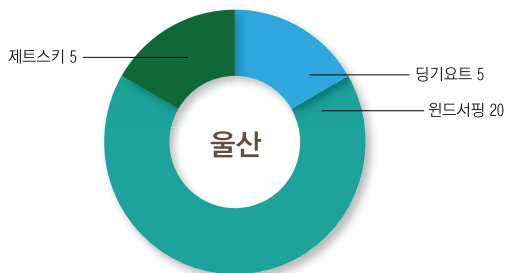
### 06 스쿠버 다이빙의 최적지 태종대 Taejongdae

울창한 숲, 깎아내린 듯한 기암절벽 그리고 넓고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만으로도 해양관광의 명소라 할만하다. 다소 거칠지만 깨끗한 자갈 해변과 깊은 수심이 특징인 태종대는 바다낚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자갈마당 앞에는 스쿠버버들을 위한 전문 샵들이 모여 있어 마니아들은 연중 이곳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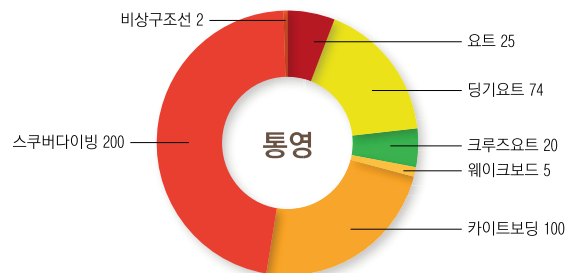
### 07 세계윈드서핑대회 개최지 진하 Ulsan

진하해수욕장은 동해 제일의 해수욕장으로 전국에서 수질이 가장 좋다고 평평이 나있다. 봄에는 바람이 물고오는 저기압이 통과하고 여름에는 해풍이 불어와 파도와 바람을 즐기는 윈드서퍼들을 즐겁게 한다. 2Km에 달하는 고운 백사장 둘레로 좌우, 후면이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캠핑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이벤트에도 적합한 장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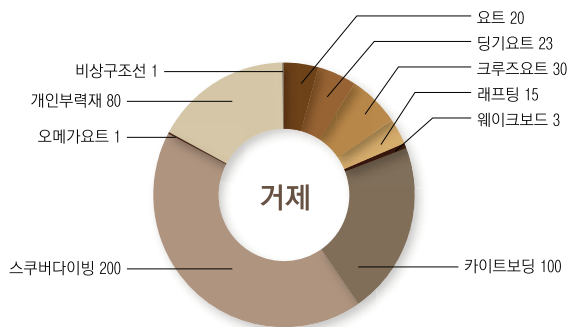
### 08 역사, 문화, 관광의 바다 통영 Tongyeong

통영은 42개의 유인도와 109개의 무인도가 산재한 아름다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든다. 연중 온난한 기후로 연중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은 충무마리나리조트 주변으로 요트대회가 열리며 충무공 이순신 유적지와 함께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해양의 가치를 조명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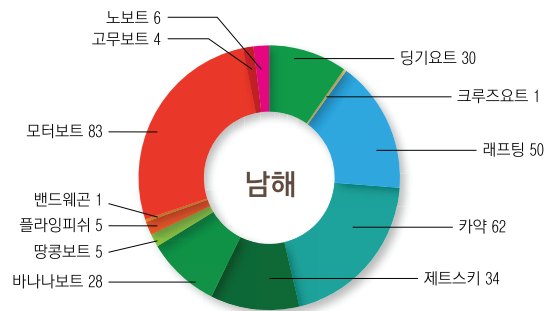
## 09 비치발리볼 & 핀수영의 섬 거제도 Geojae

거제도에서 구조라 해수욕장은 좌우의 수려한 섬 풍경을 감상하면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몇 안되는 해수욕장 중 하나다. 백사장이 넓고 고운 모래와 완만한 수심, 맑은 수질 덕분에 세계여자 슈퍼비치발리볼대회나 구조라 핀수영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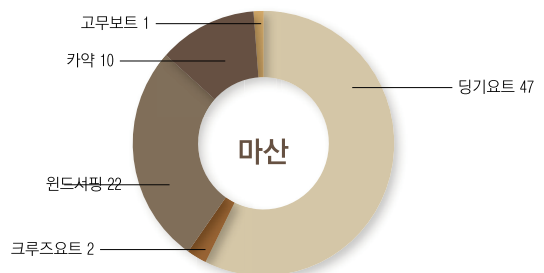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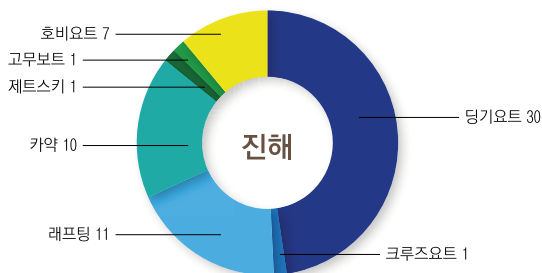
## 10 전원의 정취 속에 즐기는 해양레포츠 남해 Namhae

한반도의 최남단 한려수도의 중심에 위치한 남해군은 깨끗한 자연 환경과 유서 깊은 역사의 숨결, 순박한 사람들이 정이 대표적인 이미지다. 시원한 숲과 은빛 백사장이 펼쳐진 바다와 한려수도의 크고 작은 섬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는 청정해양도시에서 즐기는 해양레포츠의 맛도 특별할 것이다.



## 11 창원시가 운영하는 동남권 최대의 해양레포츠스쿨 진해 & 마산 Jinhae & Masan

창원은 동북아 최대의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이 자리하고 있어 세계로 뻗어가는 비전도시이다. 진해와 마산을 잇는 창원에서 만나는 바다는 108km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잔잔한 물결, 온화한 기후 등 해양레저를 즐기기에선 천혜의 환경을 가진 곳이다. 특히, 진해는 내만으로 되어있어 바람이 세지 않고 파도가 잔잔해 초보자들이 해양레저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이다.



## 지역별 대표 레저스포츠시설 상세정보



지역	해양레저 시설	연락처	홈페이지
해운대	수영만요트경기장(부산광역시 요트협회)	051-747-1768	www.basf.or.kr
광안리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051-755-0707	www.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kr
	남천마리나(2013년 완공)	-	-
송정	해운대송정마리나	1899-1801	www.beachsports.kr
송도	송도해양레저센터	051-247-8568	cafe.daum.net/290713
다대포	다대포해양스포츠아카데미센터	051-747-6175	cafe.daum.net/dmsac
태종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레포츠아카데미	051-410-4745	edu.hhu.ac.kr/edu
진하	진하 해양레포츠센터(2015년 완공)	-	-
마산	마산해양레포츠스쿨	055-712-0453~4	http://maritimeschool.cwsisul.or.kr
진해	진해해양레포츠스쿨	055-712-0445	-
통영	통영요트학교	055-641-5051	www.tyyacht.com
거제	거제요트학교	055-682-1100	www.geojeyacht.co.kr
고성	당항포요트앤스쿨(고성군해양레저서포츠허브)	055-673-5080	http://yacht.goseong.go.kr/main
남해	남해군요트학교	055-867-2977	-

※ 본 자료는 동서대학교 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가 동남권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디자인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Marine Leisure Contents & Style>의 내용 일부를 원 저자의 허락 아래 재구성한 데이터입니다. 동서대 DIDIC 홈페이지에서 더 풍성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arineleisure.kr>

# Marine DB

## 해양 관련기관

해양수산부	www.mof.go.kr	044-200-5555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02-3704-9114
한국해양자료센터	kodc.nfrdi.re.kr	051-720-2114
국립해양조사원	www.khoa.go.kr	051-400-4400
국립수산과학원	www.nfrdi.re.kr	051-720-2114
해양환경관리공단	www.koem.or.kr	02-3498-85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02-2105-2700
선박안전기술공단	www.kst.or.kr	032-260-2241
한국해운조합	www.haewoon.or.kr	02-6096-20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마린컴	www.marinecom.re.kr	051-625-6390
대한민국해군	www.navy.mil.kr	042-553-0632
해양경찰청	www.kcg.go.kr	1588-0333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02-7299-600

## 해양스포츠 관련단체

(사)대한요트협회	www.ksaf.org	02-420-4390
부산광역시요트협회	www.bsaf.or.kr	051-747-1768
한국윈드서핑협회	www.kwsa.or.kr	02-373-9200
부산윈드서핑연합회	cafe.daum.net/busanwinds	051-747-6175
대한서핑협회	www.ksasurf.org	051-746-3753
대한카누연맹	www.canoe.or.kr	02-420-4282
부산시 카누연맹	cafe.daum.net/busancanoe	051-941-1556
대한조정협회	rowing.sports.or.kr	02-420-4275
부산시조정협회	www.busanrowing.or.kr	051-973-2017
한국해양스포츠회	www.kwasa.org	051-746-302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www.sekh.or.kr	02-886-8522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	www.sek.or.kr	051-743-5589
한국외양요트협회		051-743-1454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www.kwlsf.or.kr	02-422-6119
(사)한국수상레저 안전연합회 부산지부	www.kwlsf.or.kr	051-742-0367
한국J24클래스협회	cafe.daum.net/KJ24/	
한국오티미스트클래스협회	cafe.naver.com/koda1947	
한국외양범주연맹		요트조종면허시험 051-743-1454
대한수중협회	www.kua.or.kr	02-420-4293
대한잠수구조사회	www.ert.or.kr	02-973-1191
(사)대한민국 해양연맹	www.seapower.or.kr	02-844-3889
한국해양재단	www.changpogo.or.kr	02-741-5278
(사)한국해양레저보트협회	www.korma.or.kr	02-3673-2260

## 해양관련 대학 및 학과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명공학부	www.gwnu.ac.kr 033-642-7001
경남대학교	조선해양IT공학과	www.kyungnam.ac.kr 055-245-5000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www.gsnu.ac.kr 055-772-0114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www.korea.ac.kr 02-3290-1114
군산대학교	해양생명과학, 해양생산학, 해양공학, 해양학, 해양건설공학, 수산생명의학, 해양경찰학 외	www.kunsan.ac.kr 063-469-4113
목포대학교	해양자원학과, 선박해양공학과	www.mokpo.ac.kr 061-450-2114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 기관, 전자·통신, 해양·조선공학부	www.mmu.ac.kr 061-240-7114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환경·해양과학대학	www.pknu.ac.kr 051-629-4114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조선·해양공학과	www.pusan.ac.kr 051-512-0311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조선해양공학과	www.snu.ac.kr 02-880-5114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	www.sehan.ac.kr 061-469-1114
인하대학교	지구환경공학부, 선박해양공학과	www.inha.ac.kr 032-860-7114
전남대학교(전, 여수대학교)	수산해양대학 - 해양기술학부, 해양바이오식품학과, 수산생명의학과, 해양경찰학	www.chonnam.ac.kr 061-659-6114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해양의생명과학부, 지구해양과학과, 해양산업경찰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외	www.cheju.ac.kr 064-754-2114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www.chosun.ac.kr 062-230-7114
조선이공대학교	선박해양기계, 해양경찰	www.cst.ac.kr 062-230-8114
충남대학교	해양학과, 선박·해양공학과	www.cnu.ac.kr 042-821-5114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해양과학기술대학, 국제대학, 해양군사대학, 공과대학	www.kmaritime.ac.k 051-410-4114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www.hanseo.ac.kr 041-660-1144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	www.kcg.go.kr/kcga 041-640-2000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해양레저산업 관련업체 및 단체

STX조선해양(주)	선박제조	www.stxons.com 055-546-7928
보고마린	카약 제트스키 수입판매	051-805-1613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경륜 / 경정 운영, 레포츠 시설	www.spo1.co.kr 1577-0880
(주)세일코리아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유치, 운영	www.koreamatchcup.com 02-2685-7610
(주)SUTL레저코리아	마리나 개발, 운영, 컨설팅	www.sutlkorea.com 02-516-7071
(주)벅스코	전시 컨벤션	www.bexco.co.kr 051-740-7300
(주)씨케이아이피엠	마리나 컨설팅, 설계, 시공, 운영	www.ckipm.com 02-541-4090
(주)오션스페이스	첨단 해상부유식 설비기술개발	www.oceanspace.com/ 02-6352-1316
(주)우남마린	선박제조	www.riboat.net 055-331-9420
(주)진하마리나리조트	마리나 리조트	www.jinharesort.co.kr 051-990-1017
(주)팬스타라인닷컴	크루즈	www.panstar.co.kr 051-256-2931
(주)푸른중공업(요트사업부)	요트 제조	www.ghiyachts.com 061-464-0791
(주)한국해양레저스포츠	해양레저스포츠, 관련시설	051-851-3491
(주)한진에스엠	선박관리	www.hanjinsm.com 051-469-1596
(주)흥진티엔디	우든보트	www.hjtnd.com 051-831-0659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 건설	www.busanpa.com 051-999-3000
파워마린(주)	요트전문회사 기획 마케팅 홍보	www.powermarine.co.kr 051-731-4000
한국관광공사	해양관광사업, 콘텐츠 정보, 투자	www.visitkorea.or.kr 02-7299-600
한국선급	선박검사	www.krs.co.kr 070-8799-8019
현대산업개발(주)	마리나 개발	www.hyundai-dvp.com 02-2008-9114
현대요트(주)	요트, 요트 전문제작 및 판매 요트대여, 회원제요트클럽 운영	www.hdyachts.com 02-561-1975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 Korea Marine Leisure Network

“ 해양레저 대중화와  
해양레저산업의 공생발전 ”

## PLANNING

해양레포츠를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관련 정책기획 개발

## INDUSTRY

해양레포츠 장비 관련 기업  
해양레저 서비스 기업창업 선도

## INFRA STRUCTURE

마리나시설  
건립 운영에 기여

## EDUCATION

해양레포츠,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



# 29 < 71

대한민국의 미래  
지구(地球)가 아니라 해구(海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의 71%를 차지하는 곳 -  
생물의 80%가 살고 있는 곳 -  
산소의 75%를 만들고 이산화탄소의 50%를 흡수하는 곳 -  
태양열의 80%를 흡수해 온도를 유지해 주는 열저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地球)가 아닌 해구(海球)입니다.  
대한민국 수출과 수입의 99.7%도 바로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행복, 더 큰 미래 -  
해양수산부가 바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 부산에게 바다란,

#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이다

세계적 미향으로  
거듭나게 될  
부산향(북향) 재개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해양레저 · 관광 육성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  
해양수산부 부활로  
신해양경제시대 주도

해양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이어갈  
해양R&D특구의 출범

세계와 가까워지는 지름길,  
북극항로 개척으로  
세계적 물류중심지로 도약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 부산~유럽 항로 수에즈운하 이용 시 보다 거리 40%, 운항일수 10일 단축효과!  
- 부산~미국 항로 파나마운하 이용 시 보다 거리 30% 단축효과!

바다에서 발견한  
무한한 가능성들로 신해양경제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블루 사파이어의 매혹이 부드럽게 넘어온다

## 36.5도 골든블루 사피루스

위스키 절정의 맛과 향을 위해 마침내 찾아낸 부드러움의 미학 36.5도-  
블루 사파이어 컷으로 장식한 병에 담아 맛과 격을 한 번에 끌어올린 「골든블루 사피루스」  
혁신적인 생각이 만든 새로운 위스키의 맛과 품격을 음미해 보십시오.



사피루스(Sappirus) : 세계 3대 보석 중의 하나인 사파이어(Sapphire)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GOLDEN BLUE**  
*Premium Whisky*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안전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